

신랑 직업·경제력 등 허위정보 한번에 300명 맞선 '속성 결혼'

한국남-베트남여 '물지마' 국제결혼 실태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의 상당수는 맞선을 볼 때 남성의 국적은 물론 직업·경제력 등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결혼 중개 자체가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중개업소의 중개료 가로채기, 지참금 갈취 등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나라당 안병욱 의원이 입수, 12일 공개한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 : 베트남 현지 실태조사'에 들어 있는 것들이다. 실태 조사는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연구 용역을 받아 지난해 12월 현지에서 이뤄졌다.

◇'물지마 결혼' '속성 결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에서의 결혼은 초특급으로 진행된다. 맞선, 결혼식, 합방, 신혼여행이 길게는 6박7일간, 짧게는 2박3일간 한국 남성의 베트남 체류 기간에 맞춰 이뤄진다.

한국 남성은 한번 맞선에서 적게는 20~30명, 많게는 200~300명을 볼 수 있다. 베트남 여성이 5~10명씩 차례로 들어오면 마음에 드는 여성을 1명씩 짝이 됐다가 이들을 대상으로 2차, 3차 선택을 거쳐 최종 1명이 낙점된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선택되는 것 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것이 데다 한번 거부하면 '마담 뚱'들이 다시는 맞선을 보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허위 정보이다. 한 베트남 여성은 "선 볼 때 남편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며 한달 수입이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막상 결혼해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였다. 나와 결혼하기 전에 몽골 여성과 결혼했는데 그 여성이 자해 소동을 벌여 이혼했다고 하더라"고 털어놨다.

◇'만남과 결혼' 공공연한 불법=베트남에서는 이윤을 목적으로 한 결혼 중개행위가 불법이다. 이 때문에 결혼 과정이 은성화할 수밖에 없다.

베트남 여성의 동원에는 대마담과 소마담, 모집책이 가동된다. 보통 소마담은 15~30명, 대마담은 60~100명 정도의 여성을 두고 있다.

모집된 여성들은 호찌민 등에서 마담이 운영하는 공동 숙소에서 생활을 한다. 짝을 빨리 찾지 못하면 공동 숙소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게는 몇달이 걸릴 수도 있다. 일부 여성의 경우 장기 숙소 생활로 진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장애인과 결혼하기도 한다.

맞선은 한국 남성이 도착한 다음날 오전에 끝바로 이뤄진다. 여성들을 맞선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한다. 봉고차를 이용해 수십명의 여성을 동시에

옮길 때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를 이용한다.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을 맞이하려면 공식 비용만 1천만원이 드는데 한국인 중개업체가 650만원을 갖고 나머지는 마담들 주머니로 들어간다. 한국 남성이 신부 부모에게 지참금으로 통상 50만원을 준다. 하지만 이도 중개 수수료 등을 제하면 실제 전달되는 액수는 18만원 정도에 그친다.

◇현지 결혼 후 입국, 그리고 한국 생활=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는데 보통 2~3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 베트남 여성들은 공동 숙소에서 한국어 공부와 한국 요리 감수, 예절 교육 등을 받는다. 이 비용은 별도로 내야 한다.

하지만 갖은 역경 끝에 한국에 도착하더라도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한 여성은 "한국에 오자마자 남편이 여권을 뺏고 목을 졸라 너무 무서웠다. 신랑이 정말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도가 올 초 국제결혼 부부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마련한 '다문화 가정 부부공동체 훈련' 참가자들이 한국 생활예절을 배우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광주일보 자료사진>

"고졸 이하 880만원 전문대 이상 980만원" 외국인 신부 상품화 심각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외국인 신부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은 물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및 광고까지 실는 등 외국인 여성의 상품화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병욱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일부 결혼중개업 사이트에 외국인 신부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 광고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신부

보증제' 등의 인권침해적인 광고까지 버젓이 노출돼 있다.

또 이들 광고에는 고졸 이하 880만원, 전문대 이상 980만원, 영어 가능하고 도시지역 중산층가정 출신 여성은 특별맞춤회원 1천500만원으로 외국인 신부의 학력과 가정 출신 배경 등을 등급으로 나눠 놓기도 했다.

또 안 의원은 해당 여성들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한 고리사채나 인신매매에 가까운

강제적 혼인 구조가 심각하고 출신 경력이나 처녀성의 검증은 위해 산부인과 검진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

안 의원은 "상업성만 추구하는 결혼 중개 시스템은 만남에서부터 구조적 모순을 야기하고 결국 결혼생활에 있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핵실험 한 달, 지금 평양은

④ 쌀값은 치솟는데...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와 '평양남새온실공급소'는 5일 평양시 낙랑구역 '평양남새공급소'에서 남북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남새온실 및 냉장창고 준공식'을 가졌다.

"올겨울 어찌 나나" 굶주림 공포

"전남도민들께서 지원해 주신 물자와 기술로 만든 평양 남새온실과 냉장창고는 앞으로 심상하고 맛있는 남새(채소)를 많이 생산해 인민들에게 공급할 것입니다" 5일 평양시 낙랑구역 통일거리 승리 1동 '평양남새공급소' 이날 오전 10시 30분 남북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평양 남새온실 및 냉장창고 준공식'에서 김명숙(여) 평양남새공급소 총지배인은 "전남도민들의 동포애가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린이 등 많은 생명을 살렸는데, 올겨울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북 식량지원 창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의 최근 보고서는 회원국들의 지원 부족으로 내년 1월부터 북한에 식량공급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한이 매년 40만석 해운 식량지원을 중단했고, 중국도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데다 다른 나라의 지원도 요원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크게 훼손된 것도 식량사정의 악화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최소 80만t의 곡물이 부족하고, 내년 봄까지 비료지원이 없으면 식량 생산량이 평년의 70% 수준으로 떨어져 심각한 식량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제사회 등 돌려...쌀값 두배 이상 올라 "원예시설 지원 전남도민 동포애 감사"

평양=김주정 기자

70여명의 주민들도 "이제 남새는 물론 모종까지 장마당(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주민들은 특히 "하우스 재배의 성패는 물 관리에 있다"는 남측 관계자들의 기술 지도에 귀를 세우며, 이것 저것 물기에 바빴다.

남북교류협의회는 지난 2003년 발족한 이래로 ▲평남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건설 및 농기계 지원(2003년) ▲농기계 수리공장 지원 및 우리 밀 종자 전달(2004년) ▲남북공동도내기 및 비닐온실 협력사업(2005년) 등 큰 규모는 아니지만 통일시대에 대비한 농업협력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전남 22개 시·군과 민간단체 등이 지원하는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이하 전남남북교류협의회)가 평양에 시설 채소 및 원예작물 재배용 하우스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5월, 모두 8억5천만원 상당의 남측 물자와 시공비·물류비 등이 투입돼 비닐하우스 8동(2천400평)과 냉장창고 4칸(80평)을 갖췄다. 시공기간 동안 남측에선 하우스와 냉장창고 전문가를 물론 친환경농법 전문가가 방북해 북측 기술진과 공동공사를 하며 기술 전수도 했다. 남한의 선진 시설원에 기술을 북한에 전수해 북한의 낙후한 농법을 개선하고 식량난 해소를 돕고자 하는 인도주의적 목적에서였다. 전남

윤장현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상임대표는 "평양남새온실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 친환경 농업의 발전기로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7·5)와 핵실험 발표(10·9) 이후 전남남북교류협의회 등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한 남한 사회의 눈길은 싸늘해졌다. 이번 준공식에도 당초 50여명의 회원들이 서해 직항로로 방북할 예정이었으나 핵실험의 여파로 30명만 참석했다. 윤 대표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모금운동을 나가면 '왜 퍼다 주냐'고 화를 내는 이들이 생겨났다"며 "민간주도의 대북 쌀 공급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으로 북한의 어

겨울로 접어들면서 북한내 쌀값도 크게 올랐다. 북한은 지난해 가을 10년만의 풍작으로 쌀값이 kg당 650원까지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비교적 식량사정이 좋은 평양의 '통일시장'에서 kg당 1천100원에 거래되는 등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kg당 1천300원까지 치솟은 상황이라고 한다. 1994년 가을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때 kg당 45원이던 쌀값이 이듬해 2.7배인 120원으로 오른 것을 감안하면 최대 3천원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예기다.

북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만원 선이다.

전남대 임재완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나마 연민의 정을 갖고 도우려던 사람들이 핵실험을 보고 등을 돌렸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라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는 한 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2006년 12월 16일(토) 오후 7:30
광주영주체육관

이승철 Live in Korea